

어머니,
우리 어머니

심흥보 지음

어머니, 우리 어머니

교회인가 2016년 4월 18일
초판1쇄 2016년 5월 15일
지은이 심흥보 베드로 신부
펴낸이 전갑수
펴낸곳 기쁜소식
1989년 12월 8일 등록 제1-983호
서울 성북구 성북로 5길 44(성북동 1가)
전화 762 · 1194-5 FAX 741 · 7673
E-mail:goodnews1989@hanmail.net

값 7,000원

ISBN 978-89-6091-042-3 04230



이 책을
아버지 심재필 바오로와 어머니 이수영 엘리사벳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지극히 자비로우신 어머니 성 마리아께
바칩니다.



추천의 말

이번에 우리교구의 심홍보 베드로 신부님이 신자들과 성지순례를 하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심 신부님은 각 꼭지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에서 출발하여,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묵상하도록 이끄시고, 어떻게 우리가 성모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복음을 실현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 기도로 제시하셨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교황 권고 ‘구원의 은총’ 17항에서, 마리아님은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첫째이십니다. 그분 나자렛의 동정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되신 분이시며, 가장 완전하게 봉헌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정배적 사랑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천주의 성모가 되시어 그 절정에 달합니다. 당신 팔로 그리스도를 안으신 어머니로서 그분께서는 동시에, ‘나를 따라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어머니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정결, 청빈, 순명의 스승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다.” 라고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셨습니다.

또한 교황님은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1코린 1,9) 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인용 하시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신앙의 길에서 성모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전구를 청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진실하신 그분께 언제나 충실하면서, 마리아 안에서 그 특별한 도우심을 찾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아들과 가장 완전한 친교를 맺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신 동정녀 그분께서 여러분의 복음적인 길에서 여러분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느님의 무한하신 진실성을 체험하고 또 이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 주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목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올곧은 신심으로 가득 차, 우리 한국 순교 성인들의 순교정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에서 실현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밑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주강생 2016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마리아의 말

본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유럽의 성모발현지 순례를 기획하면서, 단순히 신심 성격의 강론보다는 성경에서 성모님의 흔적을 찾아 그를 묵상하여 전달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여겨 이 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성모님께서,

첫 번째, 처녀 마리아로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여 낳기까지(루카 1,26-38 성모영보, 루카 1,39-45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 루카 1,46-56 마니피캣-마리아의 노래, 마태 1,18-25 요셉의 꿈),

두 번째, 어머니 마리아로서 예수를 낳아 기르실 때까지(루카 2,1-7 구세주의 가난하고 연약한 탄생, 루카 2,8-20 목자들의 경배와 예언, 마태 2,1-11 예수 아기의 출현과 혼란. 동방 박사들의 경배, 마태 2,13-16.19-23 피난과 귀환, 루카 2,21-39 예수의 작명과 성전 봉헌 그리고 시메온과 한나의 예언),

세 번째, 제자요 동반자요 협조자인 마리아로서 예수님의 공생활을 함께하실 때까지(루카 2,40-52 성전에서 찾으심, 요한 2,1-11 카나의 혼인 잔치, 마르 3,30-35 아들 예수에 대한 소문, 루카 23,26-31.49 십자가 길에서의 모자),

네 번째, 예수님의 수난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의 어머니로서 제자 공동체와 함께하시는 모습(요한 19,25-27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다, 루카 23,55-56; 24,1-10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머니, 사도 1,13-14; 2,1-4; 9,31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심)을 담았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와의 개인적인 추억을 회상하며 성모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하나 하나에게 어머니를 주셨고, 그 어머니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기에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저를 낳으시고 함께하시며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어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심에 마음 깊은 데서부터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국문화협회가 102개 비영어권 국가에서 4만여 명에게 70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고르도록 했더니 '어머니'란 단어가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다는 면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혹자들은 하느님께서 바쁘셔서 인간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시며 인간을 돌보도록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시며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한층 더 불타올라, 성모님께 의탁하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실현하여,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하느님 나라가 하루 빨리 완성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원고를 소중히 받아주시고 출판해주신 기쁜소식 출판사 전갑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주강생 2016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제주 엠마오 연수원에서
심홍보 베드로 신부



목차

제1부 처녀 마리아

- 1 기뻐하여라(루카 1,26-38 성모영보) / 14
- 2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39-45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 / 23
- 3 내 영혼이 기뻐 뛰니(루카 1,46-56 마니피캇-마리아의 노래) / 30
- 4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18-25 요셉의 꿈) / 38

제2부 어머니 마리아


- 5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루카 2,1-7 구세주의 가난하고 연약한 탄생) / 48
 - * 한 송이 장미보다 / 56
- 6 곰곰이 되새겼다(루카 2,8-20 목자들의 경배와 예언) / 59
- 7 어디 계십니까
 - (마태 2,1-11 예수 아기의 출현과 혼란. 동방박사들의 경배) / 70
- 8 일어나 피신하여 있어라(마태 2,13-16,19-23 피난과 귀환) / 76
 - * 존중하게 하소서 / 84
- 9 예수라고 하였다
 - (루카 2,21-39 예수의 작명과 성전 봉헌 그리고 시메온과 한나의 예언) / 87

제3부 제자요 동반자요 협조자 마리아

- 10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루카 2,40-52 성전에서 찾으심) / 98
 - * 이냐시오 성인의 기도 / 106
- 11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1-11 카나의 혼인 잔치) / 107
 - * 스스로를 내어맡기는 기도 / 113
- 12 누가 내 어머니냐(마르 3,30-35 아들 예수에 대한 소문) / 114
 - * 주님의 영을 따르게 하소서. / 123
- 13 지켜보았다(루카 23,26-31.49 십자가 길에서의 모자) / 125
 - * 또 다른 시작 / 132

제4부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

- 14 어머니의 아들입니다(요한 19,25-27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다) / 136
- 15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 (루카 23,55-56; 24,1-10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머니) / 143
 - * 부활, 그 새로운 희망 / 152
- 16 기도에 전념하였다
 - (사도 1,13-14; 2,1-4; 9,31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심) / 154
 - * 성모 호칭 기도 / 161



제1부
처녀 마리아

1 기뻐하여라

말씀 예수님의 탄생 예고(루카 1,26-38)

1 ²⁶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²⁷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²⁸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²⁹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³⁰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³¹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³²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³³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³⁴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³⁵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³⁶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³⁷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³⁸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외할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따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가정을 꾸리고 싶고, 길에서 놀고 있는 그 어느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가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고 싶었을까?’
아버지는 어머니 뒤를 쫓아가며 돌을 던졌는데, 뒤를 돌아보며 욕을 하지도 않고, 멍청거리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앞만 바라보고 가시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저것이 여성의 정숙한 모습이겠거니 하면서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무엇을 보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칭혼을 하러 오신 아버지를 맞으면서 어머니는 행복했을까?’, ‘어떤 기분이셨을까?’, ‘피하고 싶었을까, 아니면 잘생긴 아버지를 남편으로 맞게 될 미래에 대한 기대로 설레셨을까?’
‘어머니는 결혼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못내 아쉽고 송구스러운 것은 내가 어머니의 인간적이고 여성적인 매력을 잘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왜 여러분을 배우자로 선택하셨다고 합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무엇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 때 여러분의 결정을 지금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아니면, 후회와 원망 속에서 마지못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 어머니

은총이 가득한 이여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행복했을까?

마리아는 우선 당황했을 것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천사가 찾아오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것이니까. 이 드라마틱하게 서술한 성모영보고지에서 마리아는 기쁘고 행복했으리

라.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느님께서 자신과 함께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테니까.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28)

고대로부터 많은 이들이 신을 보고자 했고, 알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신이 자신을 특별히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던가! 어린 소녀 마리아는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천사의 말을 들었으리라. 어찌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사실 앞에 당황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듣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안 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 기자는 그냥 황망한 가운데 이 사건이 지나갔다고 여기지 않도록 이런 기록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29절)

그리하여 마리아가 설렘 속에서 천사가 자기에게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할지 궁금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설렘이 이어지는 천사의 말에 따라 당황스럽고 다소 불안한 마음이 들었음은 어떤 일일까.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30-33절)

어쩌면 마리아는 자기가 잘못 들었다고, 다시 말해달라고 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총애를 받는 일이 아기를 가지는 일인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인 안나에게서 새 아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필 아직 결혼도 안한 소녀인 나에게서 아기가 난다는 말인지? 어리둥절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임 연령에 다다른 마리아로서는 망측하고 창피하다고도 여겼을까? 더군다나 단순한 아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을 가지리라는 말과 자기 아들이 지상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쉽게 그려내기 어려웠으리라 상상이 갑니다. 마리아도 의식이 있는 여인이었을까? 마리아도 그 시대 그 인류가 갈등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시대를 그렸을까? 자신을 통해 새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순진한 소녀 마리아는 오늘 우리 같으면 이해하기 힘들어 마음에 담고 감히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말을 입에 담고 맙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34절)

어이가 없는 이야기라 여기고 무시하며 웃어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마리아는 지적하고 대응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재차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35-37절)

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자가 알려왔습니다.

“남편은 실직하고 고주망태가 되었습니다. 생활비로 빚만 늘어가고, 자식은 끝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휴학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당에 가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체조배를 꾸준히 하다 보니, 애 아빠가 술을 끊고 냉담을 풀었고, 돈이 없어서 학교마저 휴학했던 아이는 전액 장학금을 받아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남편의 회개가 가능해지자, 그 신자는 하느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주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어디 좋은 일만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음도, 거룩해지는 것도, 죽음도, 부활을 기대하는 것도, 양보와 겸손과 희생도, 수고와 고통을 겪을 대로 다 겪으면서도 희망을 간직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느님께서 우리 삶 안에서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어제처럼 오늘을,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 숨을 쉬게만 해주시는 것도 감사 드릴뿐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예까지 들어가며 설명하는 천사의 말에 더이상 답을 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38절)

언젠가 인사이드 시기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연배가 되면 어느 정도 아시지요? 이번에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아 언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발령장 받아 볼 때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저희야 그저 주교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고, 어디 가서 살라하면, 그 어디 가서 사제로서 열심히 살 뿐입니다.”

마리아의 기쁨

마리아는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뻐할까?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 얻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그런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했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마리아의 당혹감과 두려움, 망설임을 기억합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내 자신을 비춰 봅니다.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택을 찾고 인지하여 기꺼이 수행하겠나이다. 한 때 술자리에서 권주사로 신자분들

이 환호했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거시기퍼즐! 거절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기쁘게, 퍼펙트하게, 즐기자!’

훗날 아들 예수님과 마리아님 자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때 이 마리아의 응답을 원망하고 되돌리고 싶었을까? 새 세상을 열도록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신 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소서. 아멘.’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건과 상황들을 마주치고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들과 상황들 앞에서 이렇다 할 정보나 구체적인 지식도 없이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만한 충분한 시간도 없이 응답을 해야만 하는 사건과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것들이 우리 미래를 좌우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도 없습니다. 그에 따른 기쁨과 보람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아픔과 어려움도 같이 다가올 텐데. 그것에 대해 우리는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받고, 우리는 그렇게 미래 앞에 던져집니다. 하이데거가 말했던가요.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오늘 마리아의 응답을 바라보며,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느님의 섭리와 안배를 기억합니다.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하느님으로부터 낙원에서 쫓겨날 때,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악을 집어넣은 뱀에게,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창세 3,15)
 라고 하시면서 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순간부터 점지하시고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와 안배에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과 그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도

‘주님, 저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펼쳐주시는 세상 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겪는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저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듣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듣고,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부르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기꺼이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말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루카 1,39-45)

1³⁹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⁴⁰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⁴¹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⁴²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⁴³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⁴⁴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⁴⁵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내 어머니



언젠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시면서 혼잣말을 하시는 어머니를 뵈 후 어머니는 시댁과 친정, 남편과 자식들과의 대소사들을 다 치르시면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벗들은 누구셨을까? 어머니는 누구와 어머니의 인생사를 나누셨을까? 내가 아는 어머니이기 이전에 어머니도 한 인간이고, 여성이셨을 텐데, 누가 어머니 일생의 순간들을 들어주고 함께해 주셨을까? 자못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구와 나누십니까? 누구에게 전화하십니까?



우리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주 하느님께 응답했지만, 정작 천사의 말대로 되도 걱정이고 안 되도 걱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역사를 확인도 할 겸, 누구 하나 마음 놓고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하소연이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찾아보고 싶은 분들, 만나보고 싶은 분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막상 만나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습니다. 왜 만나고 싶을까? 만나면 편안해서 그

럴까? 편안한 것은 무엇일까? 언제 어떤 경우에 편안한가? 같은 마음과 같은 지향과 같은 일을 할 때 편안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쟁 상대가 아니고 이해관계로 다가오는 이가 아니라면,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이끌어주고 함께하고 밀어준다면, 그 첫 단계로 나를 인정해 주고, 나의 잠재성을 발견해주고, 나의 지향과 의도와 기획을 공감해주고 함께하고자 한다면, 더없이 좋고 편안합니다. 무엇을 주고, 어떻게 해주고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엘리사벳은 온 마음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초대되고 응답한 마리아를 온 마음으로 반기고 지지하며 감싸줍니다. 행복한 마리아!

성령으로 가득 차

엘리사벳의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리아는 자신의 작은 기대보다 오히려 더 큰 환대를 받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축복과 은총의 깊이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엘리사벳이 자신이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을 입었는가에 대해 마리아에게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사전의 어떤 모임이나 정보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기사는 적어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영보고지를 받은 후 첫 번째 만남이었다고 암시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루카 1,41-42)

성령께서는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의 뱃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기쁘게 예수 아기를 반깁니다. 아울러 엘리사벳 성녀는 성령으로 가득 차 마리아께 찬사를 보냅니다.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 기사내용에 드러난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식별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만나는 상대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우신 움직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를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느지를 내가 알아차리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허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그와 함께 기뻐하며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경우일 것입니다.

신자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고, 어떻게 그와 함께 활동하셨는지를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그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작은 희열이 샘솟고, 주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를 올려 드리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주님 계획안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할 나위없는 큰 기쁨을 누립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사실 많은 예언자들과 제왕들도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루카 10,23-24)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엘리사벳은 기쁨에 차서,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2ㄴ-45)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마리아를 반깁니다. 질투와 시샘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반기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기에 온 마음으로 반기고 지지하게 되나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작은 성공 사례, 아니 그 작은 가능성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첫 단계로 즈카르야와 엘리사벳을 통해 구세주를 준비할 세례자 요한을 점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단계로 천사를 보내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그를 통해 예수 아기가 탄생하리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세 번째 단계로, 오늘 주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두 여인을 서로 만나게 하여, 서로를 바라보며 공감하게 해줍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길에 나아가며 겪게 될 기쁨과 슬픔, 보람과 공허, 희망과 좌절 앞에서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니 주 하느님께서 서로 만나게 엮어주시는 사람들 안에서 주님의 커다란 은총을 느낍니다. 오늘 만나도록 엮어주신 이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과 움

직이심을 느끼기에 그들은 더욱더 소중하고 귀하며, 기쁨이 됩니다.

믿음의 행복

그 기쁨은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45절)

내가 믿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만도 흥분되는 일인데, 이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더욱더 흥분되고 설렙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무슨 장애나 불청객이 와서 방해나 불의의 사고나 일어나지는 않을까 싶어 불안과 조바심마저 간직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악의 노예가 된 인간의 사악함에 맞부딪힐 때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조바심과 불안을 온전히 떨쳐낼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나를 주님의 섭리와 안배로 몸소 이끄시고 활동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

‘주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엘리사벳에게 일깨워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섭리해주시고, 안배해주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께 화신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복된 이들을 통해 몸소 활동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령의 감화로 예수 아기를 알아본 엘리사벳의 찬사를 받으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내 영혼이 기뻐 뛰니

말씀 마니피캇-마리아의 노래(루카 1,46-56)

1 ⁴⁶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⁴⁷**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⁴⁸**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⁴⁹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⁵⁰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⁵¹**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⁵²**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⁵³**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⁵⁴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⁵⁵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⁵⁶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내 어머니



제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답니다. 두 분을 잃고 나서 저를 임신하셨을 때 부모님은 항상 조심하셨고, 저를 고이고이 키우셨으리라 상상이 갑니다. 두 동생이 더 생겼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교육비 걱정으로 반갑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부모님 사랑 담뱃 받고 자라나셨죠?

아버지들은 자식 하나 더 생기면, 위기감이 들어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부지런히 일한다고들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린아이의 출생이 가족이나 사회에 짐이 아니라 참 기쁨이요 희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마리아는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마리아는 왜 기뻐했을까?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마라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하느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나니,
 인내가 모든 것을 얻게 하리라.
 하느님을 모시는 자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나니
 오직 하느님만으로 흡족하리라.”

라고 읊었습니다.

파티마의 루시아와 히야친타와 프란치스코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모님이기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천사가 그 소년 소녀들에게 이미 알려준 대로, 그들은 “주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미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어머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머니이기에, 그분이 내 어머니이기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감옥에 갇힌 히야친타가 울면서 했던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는 엄마를 보지 못할 까봐 무섭다.”

마리아도 그렇게 주 하느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서 함께했기에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 주 하느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마리아는 주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기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준 임신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찬사를 듣고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비단 아기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아기가 하느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사실로 기뻐합니다. 자신을 통해 하느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기뻐합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자신의 기쁨이 자기에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라 여깁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루카 1,46-47)

마리아는 이 기쁨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과 신분상승으로 인하여 기쁜 것이 아님을 잘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좋아서,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되었기에 기쁘다고 말합니다. 자기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자신이 응답하고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생애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마리아 개인에게는 기쁨이라기보다 부담과 희생에 가깝습니다.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마리아는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으로 칭합니다. 당대 목수의 아내가 될 여인 마리아. 마리아는 경제적인 서열을 염두에 두고 말하기보다 하느님 앞에 선 피조물의 겸손한 처지를 밝힙니다.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48-49절)

마리아는 자기 개인의 사건을 온 민족의 사건으로 확장시킵니다. 자신의 경사와 기쁨을 민족들의 경사와 기쁨으로 삼아줍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을 자신의 입신양명과 복수 및 정적 제거를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압니다. 마리아에게 맡겨진 일은 인간의 이해관계와 입신양명을 넘어선 거룩한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49-50절)

오히려 하느님의 권능은 자비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펼쳐질 무한한 용서와 평화와 위로입니다. 하느님의 힘은 압제하는 권력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권능은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회개시키는 연민입니다.

권능을 펼치시어

이제 그분의 자비는 개인과 민족을 넘어 세상 모든 이에게 펼쳐집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51-54절)

마리아가 의식 공부를 한 이인가? 아니면,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열등감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였는가? 언젠가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반기고 포용하고 자기화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로 성당 뒤쪽에 앉아있는 이들은 가난한 이들이고, 저 뒤쪽에 앉아있는 가난한 이들에게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앞에 앉아있는 이들은 다 들린다고. 그러기에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챙기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부자들도 이미, 아울러 챙기는 것이라고.’

‘물질적으로 가난하여, 어서 빨리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가진 이들을 비난하고 시기하며, 탐욕으로 가득한 이들’과 ‘물질적으로 가졌다고 하여, 가지지 못한 이들을 차별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착취하며, 물질의 노예가 된 이들’이 모두 해방되는 날을 꿈꿉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의 생존 조건과 가난한 처지를 받아들입니다. 물질적 가난 안에서도 형제자매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

람들의 새 세상을 꿈꿉니다.

당신 자비가 영원히 미치리라

마리아는 한 민족 한 세대를 넘어 온 세상, 온 세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는 모든 이에게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54-55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눈감아주시고 씻어주시어, 오늘을 이렇게 숨 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올바른 길로 접어들도록 해주시는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현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향하게 해주시는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

‘마리아를 통해 하느님의 거룩한 일을 시작하시려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마리아를 통해 새 세상을 열고자 하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마리아를 통해 우리 인간을 물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마리아를 통해 우리 인간 모두를 차별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마리아를 통해 우리 인류를 현실의 생존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희망을 품게 해주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세상의 기쁨과 행복으로 봉헌하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4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마태 1,18-25)

1¹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¹⁹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²⁰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²¹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²²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²³“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²⁴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²⁵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내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를 왜 선택하셨을까?’

‘아버지는 어머니를 선택하시며 어떤 미래를 꿈꾸셨을까?’

‘아버지는 어머니를 선택하셔서 행복하셨을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선택하도록, 어머니를 아버지의 눈에 띄게 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가정에 어떤 안배를 하셨을까?’

아버지 어머니는 내 부모님이시고 또 내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기에 궁금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찾고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간섭하거나 막지도 않습니다.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하느님의 안배하심 속에, 우리 부모님은 자유롭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관계 없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주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설혹 우리가 주님의 뜻과 다르게 나아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배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 곁에 다다를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나를 부르시고 안배하시며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주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안배하고 기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부모와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우리 어머니

남모르게

요셉은 마리아와 혼인할 생각에 하루하루가 설레었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가 회임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로 뒤섞인 밤을 뒤척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지? 당혹과 분노의 밤이 깊어만 갔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마태 1,19)

마리아를 사랑한 요셉은 마리아에게 치욕과 징벌보다는 자유를 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마리아를 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도록 고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임한 마리아와 함께 살 수도 없기에, 그냥 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예수라고 하여라

그 견디기 어려운 긴 밤,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 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20-23절)

요셉에게는 마리아에게처럼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는 하느님의 섭리를 치욕과 분노의 육으로 겪으며 깨우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요셉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정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주님의 어머니와 주님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23절) 하느님처럼, 요셉은 성가정을 이루고, 성가정의 수호자로서, 성모님과 예수 아기와 함께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파티마 성모 발현지를 순례하는 세계 문득 이런 말귀를 울려 퍼지게 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쓰고자 하신다면, 부족하고 부당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쓰소서.”

“주께서 제가 필요하시다면,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업적을 이루소서.”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복음사가는 요셉이,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24절)

라고 전해줍니다.

성가정의 수호자

마리아에게 요셉은 참 좋은 남편이자 협조자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들려온 하느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장애와 위협과 위협을 막아주었습니다. 요셉은 주 하느님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인간적인 아쉬움과 섭섭함과 아픔을 공감하고 연대하며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 요셉에게 마음을 터놓고 하소연을 하고, 투정을 부려 인간적인 위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논의할 수도 있었으며, 그야말로 남편 요셉은 현실에서 의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호천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행복한 이였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요셉이라는 참 좋은 선물이자 동반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배우자를 선물이자 동반자로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사목생활을 하는 제게도 귀중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동반자요 협조자로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묵묵히 저를 지지하며 사심 없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교회 직원들과 은인들을 보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지키신 예수님의 양부 성 요셉을 노동자의 수호자요, 성가정의 수호자요, 임종자들의 수호자요, 한국 천주교회의 수호자로 세워주신 주 하느님과 교회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이 시대의 요셉과 교회의 수호자들, 이들을 주 하느님의 섭리로 부르시고, 복음의 빛으로 성화시켜, 하느님 나라의 선교사로 파견하시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세우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기도

인간 이성의 법과 인간 감성의 사랑보다 하느님 성령의 안배하심을 따른 요셉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요셉에게 당신의 뜻을 깨우치게 하신 주 하느님,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오늘 저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너머에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활동하시는 주님의 안배를 발견하고 깨우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갈 힘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모진 수련과정을 밟고 일어난 요셉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리아를 통해 새 세상을 열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요셉을 바라보며 청하오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의 섭리를 따라 자신을 희생한 요셉 성인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 하느님의 안배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현세적인 입신양명과 신분상승을 희생하고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요셉과 교회의 수호자들을, 주님의 섭리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천사를 통해 들려온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마리아와 예수 아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성 요셉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성가정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 우리 신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예수 아기의 양부로 성 요셉을 배필로 삼으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제2부
어머니 마리아

5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말씀 구세주의 가난하고 연약한 탄생(루카 2,1-7)

2 ¹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²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³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⁴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⁵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⁶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⁷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내 어머니



음력 8월 13일 저녁 어머니께서는 외갓집에서 송편을 함께 빚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누워 산파의 도움으로 저를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셨다고 하시던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이를 낳으셨습니까?



우리 어머니

황망하고 처절한 출생

산후 조리원도 없던 그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마리아는 산파도 없이 아기를 낳았고, 그 마저도 배냇저고리는커녕 낳은 아이를 널 곳조차 없어, 아기를 포대기에 쌓아서 말 밥통에 뉘었습니다. 황망하고 처절한 출생의 순간입니다.

언젠가 첫영성체 교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태어나셨을까?”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했건만, 초등부 한 여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뜻밖의, 그러나 정확한 답변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서 그런 대답을 들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인까르나씨오(육화) 케노시스(비움)를 설명할 수 있을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도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6-7)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과 같은 조건과 같은 처지를 취하신 주님. 가련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련한 처지로 오신, 그것도 가련한 인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가련하게 오신 예수님. 오히려 인간의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실 정도로 철저하게 인간 가난을 선택하신 주 예수님. 가련한 생활을 하는 목동들보다도 더 가난하게 오셔서, 목동들의 위로를 받으셔야 했던 예수님. 가난한 이들조차 자신의 가난을 부유하다고 느끼게 해주셨던 주 예수님.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2코린 8,9)

그분은 진정 가난하고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위로자이십니다.

물질적 결핍에서 풍요로운 은총으로

가난이 뭐가 좋은가? 어떤 이들은 성당에 가면 가난 이야기를 자꾸 해서 가기 싫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던 이들 중에는 가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굴을 찡그리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가난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빨리 벗어나야 할 가난의 상태를 추상적으로 추켜올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난은 현세의 물질적인 결핍에서 벗어나, 하느님 풍요로운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는 이들에게 주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마태 14,16)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가난 구제 활동을 믿음과 관련하여 말하기까지 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듯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 2,14-17)

교회는 물질적인 가난, 궁핍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상황에서 빠지게 되는 유혹에도 주의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마태 4,3)

교회가 가난 구제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을 물질로만 채우려고 하면, 자칫 교회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물질로 채워주려고 하면,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줄 물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이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풍요한 사람이 더 존중받는 상황이 됩니다. 교회는 주는 이와 받는 이로 갈라지고, 주는 이가 우위에 서게 됩니다. 교회는 구성원들 간의 평등과 일치가 균형을 잃게 됩니다.

부유한 이와 가난한 이가 갈라지지 않도록 익명으로, 십시일 반으로 모아 나누려고도 하지만, 교회가 주는 이로 변모될 위험을 안게 됩니다. 물질을 주는 교회와 받는 이로 또 갈라지게 됩니다. 가난은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가난한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지 못하고, 친근하지도 않아 거리감을 느끼게까지 합니다. 내가 가서 편안하지 않은 교회는, 내게는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가난하지 않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나누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물질이나 정신, 영적인 것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을 향해 “여러분이 여기 오는 것이 여러분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오십시오.” 라고 했던 시애틀 추장의 말을 되새겨 봅시다.

못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힘이 없어지고, 외출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문해 봅시다.

‘내가 전에 가난했던 시절보다 행복한가?’

‘가난하게 살았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또 자문해 봅시다.

‘그러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행복한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회상해 보면, 가난할 때도 나름대로 행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무언가를 가지면 그 가진 것에 의지합니다. 그 가진 것이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친구의 시간을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을 사지는 못합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함께 떠들고 어울리며 인격적으로 돈독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유형무형한 무엇으로 대신 채워진 다음에는 관계를 맺던 인격 사이에 물질이 자리합니다. 그 유형무형의 무엇을 공유하지 않는 한, 자신이 간직하고 지켜야 할 물질 때문에 벽이 세워지고 서로 간에 거리가 생깁니다. 관계가 냉랭하고 사무적이고 표피적으로 변해 텅 빈 방을 홀로 들어가듯이 공허하고 허망해집니다. 가져서 행복하고 더욱더 돈독해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 거리를 느끼게 하고 멀어졌습니다. 편안한 것이 아니라, 외롭습니다.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결핍을 느낍니다.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가난

주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4절)

가난은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자세입니다. 가족이나 친지나 다른 어느 물질적인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갈증과 원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물질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린 하느님. 우리가 뭇가를 드려야 할 정도로 연약하고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게 해주시는 하느님. 아무 것도 줄 것이 없으시면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행복을 주시는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기쁜 소식입니다. 어미 품에 안겨 썩썩 잠이 든 아기를 바라보며 부모는 더 이상의 다른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모든 것?’ ‘너는 나의 참 기쁨’입니다.

‘왜, 많이 먹어 배부른 것보다, 나눠 먹을 때 더 행복한가?’

‘왜, 혼자 먹을 때보다, 함께 먹는 것이 행복한가?’

‘왜, 자식이 먹는 것을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른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

주 예수님은 우리 영신생명의 양식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5)

주 예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풍요로운 양식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37-38절)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주 예수님을 우리 구원의 양식으로 내어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39-40절)

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사도직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요한 4,32,34)



기도

‘주 예수님, 주님을 뵈는 기쁨을 주소서.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맞이하는 행복을 허락하소서.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모시는 구원으로 이끄소서. 아멘.’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련하게 예수 아기를 낳으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한 송이 장미보다

한 송이 장미를 들고
한 명씩 한 걸음씩
주님 대전으로 나아가는 봉헌예절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봉헌을 통해 한 송이, 한 송이 장미꽃이 봉헌함에 꽃혀짐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잠시 후면 시들어 말라버릴 저 꽃 한 송이도
이렇게 예뻐서 제 마음이 기뻐 설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기쁘고 편안해하며,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불편해하는지요.
어느 누구는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다른 이들에게 시샘을 사고,
또 어느 누구는 인정받지 못했다고 아파하고
다른 이들의 동정을 사는지요.

주님,
장미꽃처럼 우리 모든 이가
주님께서 지어내시고 빚어내신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알뜰하고 가벼운 마음은
편견과 애착으로 가득차
누구는 마다하고
누구는 그리워하나이다.

주님,
어리석고 부질없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바로잡아주시고
올곧게 정리해 주소서.
우리 각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에게서 떠나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차별 없이 존중하게 하소서.

주님은 저의 주인이시오니
저희 눈을 열어주시어
다른 이에게서 주님의 존엄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물하신 그만의 특징을 발견하여
그를 통해 활동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업적에 감탄하며
그이 안에서 주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협조하여
거룩하신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저희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그 선물을 우리 일생을 통해 양성시키고 성숙시키게 하소서.
아울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가운데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자신을 성취하지 못했더라도,
아니 그의 소명과 자질이
이 시대 이 상황에 각광받지 못하더라도,
장미 꽃 한 송이보다 더 귀중한 순간을
그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가난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들을 뽑으시고
가난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들을 통해
세상을 구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를 선택해주시고
빛과 희망을 안겨주셨으니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저희와
저희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 나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소서.
아멘.

6 곰곰이 되새겼다

말씀 목자들의 경배와 예언(루카 2,8-20)

²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⁹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¹⁰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¹¹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¹²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¹³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¹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¹⁵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다.”¹⁶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¹⁷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¹⁸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¹⁹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²⁰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내 어머니



많은 아기들이 백일이나 돌잔치를 합니다. 그 때 축하하러 온 친지들은 아기가 상 위에 차려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물건들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합니다. 그 아기가 고른 물건을 보면서 그 아기의 미래를 점쳐주곤 합니다. 아이가 돈을 집으면 부자가 되리라는 덕담을, 붓이면 학자가, 약은 의사가, 활이나 장난감 등은 운동선수가 되리라는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나는 무엇을 골라 집었을까?

나를 찾아온 분들은 나에게서 어떤 미래를 보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셨다고 하시던가요?

우리 어머니

열린 하늘

오늘 천사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이 열렸다고 알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루카 2,10-11)

목동들은 갑자기 하늘이 밝아진 것 때문에 놀라고 당황합니다. 마치 신계에 들어선 것처럼. 주님의 입김과 느낌이 목동들을 덮칩니다. 상서롭지 않은 분위기가 목동들을 신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정말 주 그리스도이신 예수 아기의 탄생이 ‘기쁜 소식’일까? 누구에게, 왜 기쁜 소식일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마태 10,34-35)

하느님에게서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는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 가 봅니다. 성모님께서 읊었던 찬가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루카 1,51-54)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오셨지만, 모든 이들이 반기지는 않았습다. 아니, 애초부터 주님께서는 확실히 한 쪽을 택하셨습니다. 교만한 통치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비천하고 굶주린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쪽의 변하기를 거부하는 부류의 시샘과 비난으로 제거될 운명이셨습니다.

비천하고 굶주린 탄생

누가 비천하고 굶주린 이들입니까? 어떤 면에서 비천하고, 무엇에 굶주린 이들입니까? 성경은 식견이 있는 학자들이 읽으라고 어렵게 쓰인 것이 아니라,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뜻도 꼭 그렇지는 않나 봅니다. 아니, 세상에는 한 부류의 사람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천해 보이면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교만한 이들이거나, 비천하면서도 더 이상 비천하기 싫어 교만한 통치자들의 편에 서서 다른 비천한 이들을 밟는 이들이거나, 자신의 비천함의 원인을 교만한 통치자들에게 돌리고 원망하고 그 자리를 탐하는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의 수혜자들이 아닙니다.

굶주린 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비천하고 굶주리는 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순응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부러워하는 처지의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나 높고 낮은 위치이나 혹은 그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의 대상 기준은 아닙니다. 얼마나 가졌고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것으로도 수혜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처지에 관계없이 겸허하게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의 바탕 위에 굳건히 서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아기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인격의 존엄성과 인륜을 저버리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아기는 기쁜 소식입니다.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신경 써주지도 않고, 스스로도 무엇 하나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 어느 방편도 꾀할 수 없어 신음하는 이들에게 진정 예수 아기는 기쁜 소식으로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이 가졌다고 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위치와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걷는 이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타인과 공유하고 나누는 이들. 현실적이며 물질적인 한계를 넘어 영원과 영의 세계를 찾고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들에게는, 비천하고 가진 것 없는 목동들에게 맨 처음으로 그 탄생이 알려진 예수 아기

가, 더욱더 기쁜 소식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비천하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의 모습을 선택하여 오십니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루카 2,12)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새 세상을 여신 구세주 그리스도의 표징입니다.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우리 행복의 표징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가련하게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행복과 희망의 표징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

이미 열린 하늘이 오늘 열렸다고 공지됩니다. 예수 아기의 탄생으로 열린 하늘이 오늘 비천하고 가난한 목동들을 통해 알려 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14)

어쩌면 마지막 선택일지 모르는 하느님의 방책은 하느님의 실책일 수도 있었을까? 어떤 이에게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무한히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습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간들의 배반의 소치에 스스로 수치스러웠을까? 그러나 사랑이신 하느님께서께서는 하느님을 배반한 인류를 향한 사랑이 부끄럽지 않으신 가 봅니다. 사

랑이라는 미명아래 ‘자식 바보’가 되십니다.

사도 성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1코린 1,21-25)

히브리서는 하느님의 마지막 선택을 기쁨과 감사의 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브 1,1-2)

노아 이후에 하느님 마음에 든 이들은 누구였을까? 산상수훈의 첫 구절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듣습니다.

“행복하여라, (자신의 시간과 능력과 가진 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주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다 줌으로써 가난해져, 하느님만을 의지하고 하느님의 뜻만을 실천하고

자 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남에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대신 당하거나, 이웃이 나쁜 일이 생겨 괴로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모여와’ 이웃을 도와주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세상의 행복과 구원을 막고 지연시키는 불의와 사리사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에)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언제나 동료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고, 친절하고 자상하여 편하게 해주는 사람, 기다려 주고 용서해 주며, 기꺼이 함께하고, 세상의 주인이며 주관자이신 하느님의 힘을 믿어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성령의 열매: 갈라 5,22-23]를 간직한 채, 겸손한 종이신 그리스도, 주님 곁에 모인)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거짓을 싫어하고, 미움을 받더라도 나쁜 일에 함께하지 않으며, 죄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랑으로 떠맡는 사람들[*에 - 낙태라는 죄를 조장하기보다 미혼모 보호와 입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과 “성실하게 공정을 펴며,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는”[이사 42,3-4])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흠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의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 라고 하시며 하느님 아버지께 대신 용서를 청하시며, 십자가상에서 죄를 뉘우치는 다른 죄수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루카 23,43] 라고 하신 주님의 자비를 입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마태 6,14] 라고 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기 죄를 감추고 두려워 불안해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탐하거나 다른 생각[공공이 셈]을 하지 않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화해를 시키고 일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봉헌하며, 원수는 하느님께서 갚아 주실 것[로마 12,19 참조]이므로 보복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정의에 투신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평화는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 “주님, 저를 주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외톨이 친구를 도와주다 같이 따돌림 당하는 사람, 질서를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 일하다 누명을 쓰고, 심지어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유혹과 악에서 헤어나,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청하며 헌신

하는)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마태 5,1-12)

최초의 복음 선포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 아기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만난 목동들은 흥분에 들떠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을 전합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루카 2,17-19)

모두 좋은 소식이건만, 상서롭지 않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에, 마리아에게는 천사의 예언과 자신과 아들 예수에 대한 하느님의 섭리하심을 거듭 확인하며,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이 아이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새 세상을 열고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의 탄생을, 왜 제일 먼저 헤로데 왕이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힌트를 주거나 알리지 않으셨을까?’

‘지금까지야 몰랐다고 하지만,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지도자들이 와서 모셔가야 하지 않을까?’

‘이어서 또 어떤 움직임이 이어질까?’

예기치 않은 목동들의 방문을 접하고 나서, 언제 어떻게 새로

운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마리아의 이런 고민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목동들은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자신들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을 직접 확인하여, 예수 아기에게서 기쁨과 위로를 받은 목동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갑니다. (곰곰이 생각에 잠긴 마리아와 달리) 목동들은 최초의 복음 선포자가 됩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루카 2,20)



기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시도 살아있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하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 조건과 처지로 오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나약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저희에게 제일 먼저 드러내 주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목동들의 방문을 받으시고 곰곰이 생각에 잠기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7 어디 계십니까

말씀 예수 아기의 출현과 혼란 및 동방 박사들의 경배
(마태 2,1-12)

2 ¹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²“**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³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⁴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⁵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⁶“**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⁷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⁸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⁹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¹⁰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¹¹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¹²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내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불편스러움을 토로하셨는데, 한학자였던 큰 고모부가 “남들은 자기 하나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평생 을 남을 위해 살고 싶다는데 왜 막느냐?”고 역성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님의 반대가 수그러드셨습니다. 제게는 고모부가 그 순간 동방박사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데 축원해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역성을 들어주신 분이 계셨는지요?

 **우리 어머니****점성술과 예언**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점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왕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왔습니다. 별로 점을 치고 이스라엘 왕의 탄생을 알아차렸다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 봅니다. 발타살, 멜키올, 카스팔로 전해지는 이분들은 점성술사로 보입니다. 매일 다른 많은 별들을 바라볼 터인데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인류의 빛으로 새로 나실 이스라엘 왕을 발견하니 남다른 분들입니다. 경제, 문화, 역사 등의 그 많은 새로운 비전 중에서 인류 구원의 빛을 발하는 별을 바라보고, 또 그 별을 따라 경배하러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 라고 말하며, 그분이 태어난 곳의 위치를 자세히 묻자,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점치는 이들의 호기심과 권력자들의 경계심 등이 뒤섞여 긴장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그 소식이 왕궁에까지 전해져 헤로데 왕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유다 학자들에게 그에 관한 성경지식을 묻게 됩니다. 유다의 성경학자들은,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2사

무 5,2)와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미카 5,1)

라는 구절 등을 근거로 삼아 그 내용을 종합하여, 이스라엘 왕의 탄생지를 ‘베들레헴’이라고 알립니다.

이스라엘 학자들도 알았을 텐데, 새로 나신 이스라엘 왕에게 왜 경배하러 가지 않았을까? 아마도 언제 태어나실지 그 ‘때’를 몰랐을까? 아니면, 설화 같은 이야기여서 아무도 현실에 일어날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

기쁨과 우환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마태 2,8)

당혹스럽고 음흉한 음모를 염두에 두기 시작하는 헤로데 왕의 모습과 베들레헴을 향해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길을 재촉하는 동방박사들을 봅니다.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9-10절)

여기서 한 가지,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면서, 왜 별의 움직임을 자세히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아니, 별은 왜 동방박사들을 예수 아기가 누워있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직접 이끌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러 묻게

한 다음 다시 나타났을까? 호사다마인가? 늘 기쁨은 우환과 겹쳐서 함께 오는 것일까? 아니면, 같은 기쁨을 어떤 이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우환으로 받아들임일까? 이어서 닥쳐올 헤로데의 음모가 몸서리쳐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예기치 않은 불행, 어디선가 누군가 우리를 노리며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끔 우리를 몸서리치게 합니다. 주님의 기도 끝구절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슬픈 경배 - 탄생과 죽음

며칠 밤낮에 걸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접하는 순간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11절)

갑자기 들이닥친 동방박사들을 맞이하며 어머니 마리아는 무척 놀랐으리라 싶습니다. 지난 번 목동들에 이어 예수 아기를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의 비범함과 특별함에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에게 바쳐지는 선물이라는 의미의 ‘황금’과 하늘을 향해 오르는 기도의 메아리처럼 피어오를 ‘유향’, 그리고 안타깝고 슬프게도 예수님의 희생 죽음을 미리 예언하기라도 하듯 죽은 이에게 바를 ‘몰약’을 새로 나신 왕 예수 아기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탄생과 함께 기려지는 죽음, 아니 희생으로

인한 죽음이라 그 탄생이 더욱 빛나보이리라. 그래서 더욱 이어지는 구절이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12절)

새로 나신 아기 예수께 우리가 드릴 선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로올라의 이냐시오 성인의 기도문이 떠오릅니다.

“주님,
저의 모든 자유와 기억, 마음, 의지를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저와 제 것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의 뜻대로 처리하소서.
주님께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아무것도 더 바람 없으오리다.”



기도

‘동방의 점성술사에게까지 그 영광을 드러내시니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매일의 일상 속에 잠긴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별 빛을 비추시며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으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8 일어나 피신하여 있어라

말씀 피난과 귀환(마태 2,13-16,19-23)

2¹³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¹⁴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¹⁵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된 것이다.

¹⁶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

¹⁹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²⁰“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²¹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²²그러나 아르켈라 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떠나, ²³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내 어머니



제가 태어나기 전에 두 분의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홍역을 감기로 오진한 의사의 실수로 인해, 또 한 분은 태어나 채 며칠을 못 살고 병명 없이 떠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 그것도 자기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내가 너 아파서 울면서 기도했단다. 네 아빠는 차 잡느라고 이리 저리 뛰고, 나는 너 죽는 줄 알고……” 마치 무용담처럼 들려주시는 부모님의 이야기였지만, 그 때 그 순간 얼마나 다급하고 힘겨우셨을지 미루어 짐작합니다.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아깝다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애지중지하는 자식의 생명.

 **우리 어머니**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주 하느님께서 인간 어떠한 비극과 절망 앞에서도 견디어 내도록, 주 하느님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이사 66,13)

심지어는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 49,15)

라고까지 말하심으로 주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주위의 상황과 인간조건에 맞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부모님들께 무조건적이고 무한적인 사랑을 기대하는 우리의 무절제한 탐욕이 문제겠지요.

죽음의 위협 - 성가정의 수호자 성 요셉

저는 손과 발이 작습니다. 사람들이 제 작은 손과 발을 두고 너무 작다고 말하면, 어머니께서는

“예로부터 선비는 손과 발이 작았다.”

라고 늘 제게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설사 다른 어느 누가 옳고 맞는 소리라고 해도 자식에 관한 것이라면 제아무리 작은 부정적인 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부정하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그러기에 우리의 부모님들이셨구요.

그런 부모님들께 자식의 위협이 닥쳐오고 있다는 느낌이 시시각각으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황망했을까 싶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마태 2,13)

그런데 한 가지 마태오 복음사가는 이러한 죽음의 위협에 대해,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경고했다고 알려줍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13절)

위협이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하는 신호도 요셉을 통해 알려줍니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19-21절)

그리고 주 하느님의 말씀과 인도를 실현할 상황판단도 요셉에게 맡기며,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도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22-23절)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양아버지이신 성 요셉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출신을 정해주게 됩니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23절)

마태오 복음사가가 유다 전통에 따라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듯도 하지만, 루카 복음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마태오 복음에서 바라봅니다. 아울러 주 하느님의 뜻을 따라 예수 마리아를 수호하는 성가정의 수호자 성 요셉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모자상과 성가정상이 우리를 포근하고 안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2013년 5월 1일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로마 미사 경본’ 제3 표준판의 감사기도 제2, 제3, 제4 양식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이름 다음에 그 배필이신 성 요셉의 이름을 덧붙여야 한다.”는 교령을 발표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Paternas vices) 예수님을 보살피면서, 나자렛의 요셉 성인은 주님 성가정의 가장으로 구원 경륜 안에서 은총의 직무를 훌륭히 완수하였다. 인류 구원 계획의 신비가 시작될 때부터 이 신비와 굳게 결합된 요셉 성인은, 그리스도 신앙이 드높이여 나아가야 하는 온유와 겸손의 모범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실하고 참된 제자들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인간의 보편적이고도 단순한 덕목들

을 보여 주었다. 그렇게 하여, 이 의인은 하느님의 어머니를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에 기꺼이 헌신하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가장 귀중한 보화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또한 요셉 성인은 신비체인 교회를 지키는 보루로서 여러 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하느님 백성의 공경을 받아 왔다.

가톨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신자들은 한결같은 신심으로 요셉 성인을 받들고, 하느님 어머니의 지극히 정결하신 배필이요 보편 교회의 천상 수호자로 언제나 성대하게 기리며 공경해 왔다. 복자 요한 23세 교황은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간에 요셉 성인의 이름을 아주 오래전부터 써 온 로마 전문, 곧 감사기도 제1양식에 덧붙이도록 하였다. 나아가,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여러 곳에서 보내온 신심 깊은 청원서들을 받아들여 그 실행을 확대하도록 기꺼이 승인하였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에 이를 추인하였다. 이렇게 이 교황들은, 우리와 함께 세상에 살던 나그네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 그분과 하나 되게 해 주는 성인들의 완전한 통공을 늘 바라보고 있다.〈후략〉”(경신성사성에서 2013년 5월 1일 노동자 성 요셉을 기리며, 장관 안토니오 카니사레스 요베라 추기경)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가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 행동이 상대에게 실제로 어떤 영

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성찰도 없이, 자신이 사심이 없다거나 또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다른 인간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어처구니없는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너도 좋다고 여겨달라고 강요하거나, 내가 너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 너는 그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집착과 지배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자유롭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의심 없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선물이 나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나에게 도전과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열등감에서 벗어나 좋은 것을 좋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에게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해주고, 칭찬해주고, 개발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하느님 나라는 활기차게 펼쳐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해 봅시다.

아울러, 오늘도 다른 이들의 야욕으로 희생되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되어 인간 각자에게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키워주는 성 요셉과도 같은 선교사들, 교육자들, 인도자들, 은인과 후원자들과 선의의 봉사자들을 통해 살아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인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희생당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저를 지금 이 순간까지 살 수 있도록 길러준 부모를 주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무한 경쟁 세상에서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성 요셉과 같은 주님의 종들, 선교사들, 교육자들, 인도자들, 은인들, 후원자들, 선의의 봉사자들을 통해 살아계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어둠이 덮인 세상 속에서도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수호자로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임종 때 저희를 주님께로 인도해주시는 성 요셉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험난한 세상살이에도 자녀들을 감싸 안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부모들을 굽어보시고 살피 주시는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존중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인격과 그 인격을 지탱해주는
그들만의 과거를 존중하게 하소서.
그들의 과거와 그 경험에 기초하여 세워진
가치관과 행위들을 이해하게 하소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죄가 아니라면,
존중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그들의 온전한 자유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기쁘게 지지하게 하소서.
내 사고방식과 행동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들의 사고와 행동이
진정 나를 살찌우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기 위해
보내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내가 보는 그들의 단점과 부족함 너머에
그들의 장점과 가치가 있으며
내가 느끼는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보다,
주님께서 고귀하게 만들어내신 그 자신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내가 겪는 불편함, 손해, 언짢음 등이
실제로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저의 신앙에 기초한 것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소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해온 세계 이외에도
그들의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미지의 거룩함을 향해 봉헌하고자 하는
그들 나뭇의 지향을 존중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봉헌과 헌신이
주님께 다다르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숨어 활동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들의 예식과 희생, 봉헌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문화와 예식을 존중하고
주님의 너그러우심으로 받아들여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과 함께,

그들의 선함과 거룩함에 참여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이 세상 모든 이와 모든 것을 합하여
주님 나라를 완성하소서.
아멘.

9 예수라고 하였다

말씀 예수의 작명과 성전 봉헌 그리고 시메온과 한나
(루카 2,21-39)

2 ²¹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었다.
²²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²³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²⁴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²⁵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²⁶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²⁷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

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²⁸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²⁹“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³⁰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³¹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³²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³³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³⁴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³⁵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³⁶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³⁷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³⁸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³⁹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내 어머니



아버지는 제 이름을 ‘홍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청송 심씨 대동보 37대라 그 돌림이 ‘보’자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앞에 ‘홍’자를 놓으셨을까? 어릴 때 그 이름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 제 이름을 들으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홍보가’(興甫歌) 때문이죠, 구전과 판소리로 전해지던 전래 소설 ‘홍보와 놀부 이야기.’

더 중요한 점은 바로 그 뜻에 있습니다. ‘보’자는 ‘도울’ 보(輔)자입니다. 그 앞에 아버지는 ‘일’ 흥(興)자를 놓으셨습니다. 글자 그대로 단순하게 풀이하면 ‘일어나서 도와라’ 라는 뜻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모님 살아생전에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고, 후손 없이 가시게 해드려 송구스럽지만, 저에게 이러한 소명을 이름을 통해 새겨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작명해 주신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제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지어주십니까?

 **우리 어머니****아들 예수**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내 아이, 나만의 아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내 아이를 처음 등교시킬 때의 그 기분과 상황. 내 아이는 여러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로서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 가운데 서 있어도 유별나게 돋보이는 아이. 그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내가 열 달 뱃속에 담고 있다가 배 아파 하며 낳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아이와 다르게 조금 크거나 작거나, 조금 잘 생겼거나 아니거나…… 어딘지 모르게 비교되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아이보다 어떤 면에서 조금 못해 보인다 싶어도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안 되고, 다른 더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느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드시고, 각자에게 각기 다른 장점을 주셨다는 면에 감탄하며 주 하느님께 찬미를 올려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각자의 숨기고 싶은 단점도 같이 평생 극복해야 할 숙제로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장점과 단점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장점을 개발시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단점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가족 하나하나에게 어떤 장점과 단점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그 장점을 개발시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그 단점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단점

예수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라고나 할까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예수의 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운 사실은 이리 저리 둘러보아도 인간 세상에는 예수의 아버지라고 할 존재가 인류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다시 돌이켜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한 차례의 홍역을 치렀습니다. 예수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들이 예수의 탄생 사실과 위치를 헤로데에게 알리지 않고 돌아가버리자,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꿎는 통곡 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마태 2,16-18)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되새기고 싶지 않은 상처입니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비밀

그래서 성전에 첫 아들을 바치러 가는 순간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았으리라 짐작합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알아본다는 사실이, 자신들의 아기를 바라보는 눈길이 그렇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들어서는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기를 앞서 반기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야말로 긴장과 경계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정녕 아픔만이 있는 것이 아닌지, 다행히 시메온은 기쁘게 그 가족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시메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루카 2,25-26)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때마침 성령께서는 시메온을 성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서는 시메온의 눈앞에 부모의 품에 안긴 예수 아기가 등장합니다. 시메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아기를 알아보고 주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음에 감탄하며 주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루카 2,29-32)

시메온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전에 그리고 그리던 주님을 만나 뵈옵는 영광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죽어도 여한이 없었으리라. 사람이 태어나 한 생을 살면서 생전에 자신이 꿈꾸던 이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또 있을까? 그리고 그 꿈이 개인과 소수 아류의 입신양명과 관련된 야망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느님의 뜻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꿈을 가진 시메온은 정말 복되었으리라. 나도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향한 편협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나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일상에서 신비를 발견하고 깨우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의 뜻만을 섬기게 된다면, 나도 시메온처럼 주님의 복된 이가 되리라.

감사와 감격 속에 솟구쳐 외치는 시메온의 찬미에 요셉과 마리아는 당혹해 하면서도 긴장의 고삐가 풀립니다. 시메온은 그 가족을 축복하며,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루카 2,34-35)

(이 정도 되면, 예수 아기의 단점은 더 이상 감추거나 극복해야 할 단점이 아닙니다. 어찌면 단점은 상황과 조건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에 따라 더 이상 단점이 아닐

수도 있나 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들었어도, 칭찬의 소리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 아기와 연관하여 들려주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슬픈 예언을 예수의 지상생애 마지막을 겪기 전까지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전

시메온의 예언을 듣고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다른 예언이 들려옵니다. 성경은 또 다른 예언을 들려줍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³⁷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루카 2,36-38)

주님의 집을 방문한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을 지난 내일이 더 조심스럽겠지만, 그래도 오늘만은 좋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펼쳐질 하느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비전이 부부를 설레게 하고 평안케 해주었습니다.



기도


‘우리 각자를 소중하게 하나하나 만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을 주면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심어주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하느님 나라와 선과 평화를 향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에게 심어주신 장점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아파 해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주님께 전구해주시는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제3부
제자요 동반자요 협조자 마리아

10 너를 애타게 찾았다

말씀 성전에서 찾으심(루카 2,40-52)

2 ⁴⁰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⁴¹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⁴²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⁴³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⁴⁴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⁴⁵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⁴⁶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⁴⁷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⁴⁸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다.”

하자, ⁴⁹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⁵⁰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⁵¹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⁵²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내 어머니



중학생 때로 기억합니다. 하루는 청소년 적십자단(JRC/RCY)의 전국 단위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하루 전 날 부속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일에 열릴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가 거기서 연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를 찾아 학교에 전화를 하시고, 전화로 해결이 되지 않자 급기야는 교무실로 쳐들어(?) 가서서는 발각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제게는 ‘어련히 알아서 들어오겠지!’가 해당되지 않았습니니다. 체육대회는 참가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 선생님과 선배 동료들의 배려(?)속에 ‘학교-집-학교’만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노동청년들의 아픔을 듣게 됩니다. ‘부모 손을 잡고 공원에 가서 놀다가’, ‘부모님인줄 알고 잘못 따라가다가’, ‘부모님과 떨어져 철도에서 잘 못 내려서’ 등등의 이유로 부모와 헤어져 자라야만 했던 어린 시절의 뼈아픈 이야기를 들곤 합니

다. 아이나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에게는 애간장이 타는 순간들이 있었겠지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잠시나마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시절이 있으신지요?



잃어버림과 찾으심

마리아는 오늘 그야말로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루카 2,43-45)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 엉뚱한 곳에 신경을 썼기에 아이를 잃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없어집니다. 주일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에게 그렇게 주의하라고 해도, 가끔 아이를 잃어버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를 들으면 웃으며 회상하고 떠들지만, 그렇게 잃어버린 아이는 그 부모에게나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나 평생 가슴에 맺힐 듯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도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니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와 문화가 다르긴 하겠지만 일가친척이랑, 또래의 아이들끼리 돌아다니는 것도 한도가 있을 텐데 밤에 아이를 데리고 자지도 않았는지, 그것도 객지에서. 성경 기자가 말한 하루가 한 나절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는 사흘이 지난 다음에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냅니다.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아예 잃어버리지는 않았으니.

지혜의 원천이신 소년 예수

그렇게 마음을 졸여가며 예수를 찾았건만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인 아들 예수의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먹을 것도 없어 물골이 누추하고 처참했으리라는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부모 잃은 여느 아이처럼 조급하고 불안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는 성전에서 학자들과 이상하리만큼 태연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46절)

예수의 부모는 다시 찾아낸 아들의 상태에 어안이 병병해집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들 예수는 미아 보호차원이 아닌 대접받는 분위기였으니 의아해 했으리라.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47절)

하긴 장님 코끼리 만지는 듯한 인간의 하느님 이야기와 하느님의 아들 예수와의 대화가 어떠했으리라 짐작이 갑니다.

아버지의 집인 성전

예수의 부모는 그의 역할과 분위기보다는 우선 그의 안위가 걱정이 됩니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48절)

조급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 예수의 반응은 적반하장입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49-50절)

예수의 부모에게는 잃었던 아들 예수를 찾은 안도감 이외에,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본당 신부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아파트에서 임시 성당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독신자, 특별히 사제가 살 곳은 아닌 듯싶었습니다. 방음도 안 되고, 매일 방역에 반상회 안내에 각종 방송과 잡상인들의 출입으로 불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난방식이었는데 주로 8시경에 불을 넣는지, 제가 성당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10시 이후에는 썰렁하고 온기가 다 빠져나가서 그런지 추웠습니다.

그러다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성전 옆에 그나마 조립식으로 지은 사제관에 들어가서 첫 날을 누웠는데 아주 폭 잤습니

다.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주님 성전 옆에서, 성체를 모신 성전 곁에서, 성당 구내에서 사는 것이 사제인 제게는 그렇게도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듯싶었고, 주님의 집에서 산다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만큼 따뜻한 물이 콧물 나오지 않았지만, 비가 오면 비 떨어지는 소리가 지붕에서부터 메아리 쳤지만 평안했습니다. 피정이나 연수로 밖에 나갔더라도 밤이 되면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예수님도 자신의 온 생각과 신경이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편안한 아버지의 집

여행을 가서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와 아침에 침대에 누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는 기쁨도 좋지만, 어딘지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반뇌의 성모 피정의 집처럼 고급은 아니어도 정갈하고 소담한 그리고 무엇보다 경당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성체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제겐 더 좋고 편안합니다. 집 같고,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모신 곳, 그곳이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곳이 정말 편하고 좋으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진정 낙원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당이 그렇게 편하고 좋으신지요? 에덴동산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 뜰 안에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의 품 안과도 같은 푸근한 곳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느낌 때문에? 마치 저 아래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위층 제 방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처럼, 주님께서 어디선가 나를 흐뭇한 미소로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느낌 때문에?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어느 곳에서보다 평안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인 내가 아버지 주 하느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리도 평안하신지요?

리지외의 예수 아기의 성녀 테레사는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저의 하느님,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의 소명, 마침내 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제 소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의 품 안에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의 어머니이신 교회의 심장 안에서 저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때를 채우며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51절)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셨기에 그것도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자녀로 태어나셨기에 부모님을 존중하셨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분은 인간으

로 살아가야 할 세상의 처세술을 부모님에게서 배우셨습니다. 마치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일 때까지, 그분은 인간 세계에서 때가 찰 때까지 인간의 아들로 나서서 겸손하게 인간사를 차곡차곡 채우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시며, 하나하나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무르익어 가셨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때를 채우고 만들어 가면서. 어머니는 그런 아들 곁에서 마치 앨범에 사진을 붙이듯, 아들의 성장을 하나씩 마음 속에 담아두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 하여 갔다.”(52절)



기도

‘늘 아버지의 집을 그리며 인간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던 주 예수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과 사회를 존중하고 익히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아이를 잃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 예수를 찾아 나서신 성모 마리아님, 세상에서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부모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아들 예수의 남다른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신 성모 마리아님, 각자 다르게 만들어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냐시오 성인의 기도

그리스도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육신은 저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성혈은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능방의 물은 저를 씻으소서.
그리스도의 수난은 저를 격려하소서.

오, 착하신 예수님, 저를 들어 허락하소서.
당신의 상처 속에 저를 숨겨주소서.
저를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를 악한 원수에게 보호하소서.
저의 임종 때에 저를 부르시고,
또 저를 당신에게로 오게 명하사,
당신 성인들과 한가지로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11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말씀 카나의 혼인 잔치(요한 2,1-11)

2 ¹사흘째 되는 날,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²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³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⁴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⁵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⁶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⁷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⁸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⁹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

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¹⁰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내 어머니



일반 신자들의 청원은 사리판단을 거쳐 빨리 거절(?)하기도 하는데, 수도자들의 청은 거절하기 참 어렵습니다. 신자들은 그 청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이들이고, 수도자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이들이 아니어서 그럴까? 수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없는데도, 그것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자들의 어려움을 사제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입장이어서 그럴까?



우리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가족과 함께 카나의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부모님과 함께 그 잔치에 초대받아 가십니다. 그런데 흥겨운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

다. 그러자 어머니 마리아는 지체 없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구나.”(요한 2,3)

왜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이런 말을 하실까?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예수님의 첫 기적 이야기는 이 카나의 혼인잔치이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서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면서 뭔가 떨어졌을 때, 급박하게 무엇인가 필요할 때,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 어머니를 도와 남모르게 기적을 베푸셨으리라. 그러기에 어머니는 아들 예수에게 넌지시, 그렇지만 아들이 어머니의 청을 꼭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탁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알리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리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함께해주시고 지켜주소서.’

‘주님, 저희 동료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전구기도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가 성모송을 바치며 비는 청원입니다. 어머니는 늘 부족하고 부당한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님께 대신 청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켜하지 않으시면서도 기꺼이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셨음을 우리는 이 카나의 기적 이야기에서 봅니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디다.”(4절)

예수님께서서는 포도주를 채워주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마셨으면 되었지, 얼마나 더 마시려고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뭔가 건설적이고 교육적이거나 사람을 살릴 때 써야지, 먹고 마시는데 낭비하면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차갑게 거절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계속 요구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으며, 주저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압력을 넣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5절)

특혜와 부패로 얼룩진 세상을 겪으며 기대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서는 어머니의 청이라 그런지 끝내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쩌면 예수님은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계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일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베드로나 다른 제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마태 16,23; 마르 8,33)

라고 불같은 호령을 내며 내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묵묵히 어머니의 청을 어머니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들어주십니다.

신비의 전달자들-복음의 증거자들

예수님께서서는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우도록 하고,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9-10절)

물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준 일꾼들은 과방장이 놀라고 흠족해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쁘고 흐뭇했습니다. 기적을 나르는 손과 발길이 얼마나 날아갈 듯 신이 났을까 그려집니다. 신비를 경험하고 전하는 이들의 기쁨은 진정 복음의 기쁨입니다. 자신이 느끼고 체험한 신앙의 신비와 그 신비를 접함으로써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은 기쁨을 형제들과 나눌 때의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일까? 자신의 통장에 쌓여지는 액수나 승진과는 또 다른 의미의 기쁨이 복음의 기쁨입니다.

믿음과 기적의 촉진자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11절)

어머니 마리아가 없었더라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리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촉구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공적인 기적은 다음 기회, 다른 경우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적과 예수님의 때를 앞당기는 촉진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리시는 계기를 촉발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

‘인간 삶의 아쉬움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여 인간의 필요를 충족해주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어려움을 굽어보시고 주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는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스스로를 내어맡기는 기도

- 샤를르 드 푸코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맡기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제 영혼을 바치옵니다.

하느님은 제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며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아멘.

12 누가 내 어머니냐

말씀 아들 예수에 대한 소문(마르 3,30-35)

3³⁰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31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32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33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34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35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내 어머니



뒤돌아보면, 저를 걱정해주시는 어머니의 염려를 귀찮아하며 불평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입을 것, 먹을 것을 비롯하여, 제 생활의 거의 전부를 챙겨주시고 보듬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정성과 애정의 덕으로 살아가면서도, 분에 넘쳐서 부담스러워했던 기억이 송구스럽고 죄스럽기만 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줄은 알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선 내 마음도 알아주셨으면 했나 봅니다.



우리 어머니

예수님의 일행은,

“군중이 모여들어 음식을 들 수조차 없”(마르 3,20)을 정도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환우들을 치료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를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마르 3,22)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가리켜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마르 3,30)

고 하자,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마르 3,21)

고 전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예수가 사람들에게서 오해와 비난을 받자, 어서 빨리 쫓아가서 집으로 데려가고만 싶었는지 모릅니다.

허겁지겁 아들 예수를 찾아 온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 예수에게 전갈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마르 3,32)

이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다 자신을 못 믿고 미워해도 부모님만은 자신을 이해해 주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시리라고 믿었던 자식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반응을 내보이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내심 섭섭해 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도 반발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마르 3,33)

카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느님께서 동생의 안부를 묻자 반발하며 외쳤던 불멘소리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창세 4,9)

아들 예수의 외침과 카인의 외침은 둘 다 부정과 반발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답답하고 씁쓸하지만 마주쳐야만 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몸부림.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외침은 안타까움과 섭섭함의 표시였을 것이고, 카인의 외침은 자기 죄를 감추고 합리화하기 위한 표시였을 것입니다.

두 경우 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향에 대한 대응이었고, 가족과 정겨웠던 인간관계를 떼 내어야만 하는 아픔을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에게는 그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가족을 떠나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카인은 가족과 형제들을 떠나야만 하는 추방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몰이해

예수의 기준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머니와 친척 형제들에게는 오만불손한 배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었을 텐데 그에 굴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르 3,34-35)
예수님께서 굳이 버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이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또 다른 이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자신과 ‘생명의 빵’에 비유하시면서 이야기 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

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요한 6,27,33,35,40)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66절)

그 순간 당대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 어긋나며, 마치 저버리기라도 하는 듯한 예수님의 기준과 행동 때문에 몇몇은 이의를 제기하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67절)

하고 물으실 때의, 베드로처럼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68-69절)

라고 답하며, 계속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 아기를 낳은 후 여러 번 박해의 위기를 겪었던 때와는 또 다르게, 이번에는 정작 아들 예수에게서 괘시와 버림을 받았다고 느껴졌을 때의 기분이 어떠셨을까?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루카 2,34-35)

라는 시메온의 예언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끔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 보며, 피부로 느끼는 우리의 감각이 정확치 않고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감으로 전달되어 내 안에 흡수된 정보가 내 가슴과 머리와 마음의 기관 안에서 인식하는 것과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공통의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 즉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사고,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이해하거나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내리면, 못사람들의 갖은 비난과 손가락질이 뒤따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이 기우들을 뒤로 하고, 다른 행동을 취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공통의 사유와 문화, 그 너머의 또 다른 의미를 지닌 무엇을 지향하고 염두에 두었을 때 나타나는 제 삼의 행위가 있다고나 할까! 예수님 사고와 행동의 결정 기준은 인간 사회의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 순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서는 어쩌면 천륜과 인륜을 저버린다는 비난이라도 받을 수 있는 말을 던지십니다.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르 3,34-35)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혈육의 어머니와 친척 형제자매들 대신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을 새로운 가족으로 선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찍이 흔히 사회에서 평가하고 말하는 ‘ 좋지 않은 혈통에서 난 사람들’이 ‘좋은 혈통에서 난 사람들’을 바라 보는 시각과 통념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듯이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루카 11,27)

그 어머니의 아들이 되지 못한 이들의 처지는 자신들의 선택도 자신들의 탓도 아닙니다. 주어진 출생 관계를 아쉬워하고 섭섭 해 하며 부정하고 싶기까지 한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실까? 예수님께서서는 가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녀 성 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로라도 하시려 는 듯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28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를 물으십니다. 누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어느 가문의 누구에게서 났느냐 여부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여부를 이야기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각자의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원의를 가지고 실제로 하느님 말씀을 실현하는 열정을 가진 모든 이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주님께서서는 성령을 보내주시어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주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알려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요한 14,16; 15,26; 16,13)

마침내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몸소 이루어 내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기도

‘신분과 성별의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가족으로 받아 주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찾고 이루려는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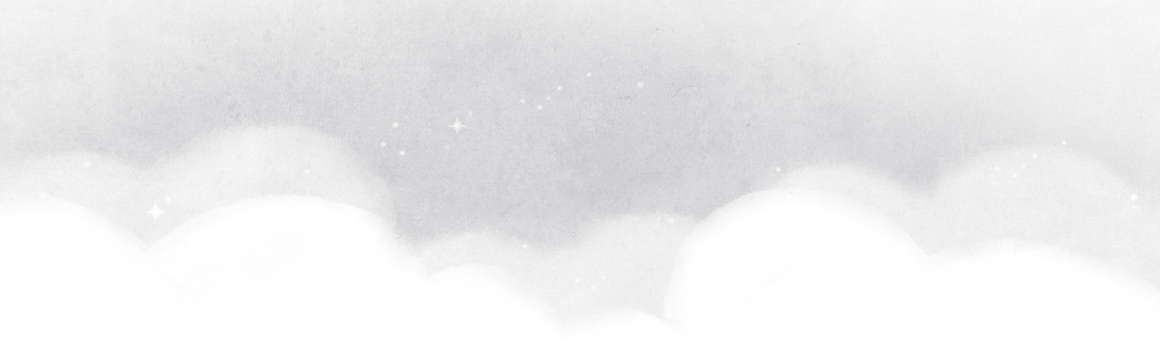


주님의 영을 따르게 하소서.

저희 안에 계시면서
저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우쳐 알게 하소서.
주님의 탄생에서 겸손을,
주님의 공생활에서 사랑을,
주님의 성체성사에서 봉헌을,
주님의 십자가상 제사에서 희생을,
주님의 부활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님의 승천에서 희망을,
성령강림에서 그리스도교 사도직을 체득하게 하소서.

저희가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승을 통해 주님의 뜻을 헤아려,
저희의 일상에서 그 뜻을 실천하게 하소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저희의 뜻을 정화시켜 주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머무는 가정과 사회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님,
 주님을 뵈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저희의 열망과 열정이
 저희의 나약과 부족으로 그치지 않고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구해 주소서.
 주님은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베드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13 지켜보았다

말씀 십자가 길에서의 모자(루카 23,26-31,49)

23 ²⁶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²⁷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²⁸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²⁹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어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³⁰그때에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 다오.’ 할 것이다.

³¹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⁴⁹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아에서 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내 어머니



언젠가 어떤 신부님께서 피정 강론 중에, 어느 날 한 아이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막무가내로 감싸주는 바람에, 결국 그 아이가 잘못을 실토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신부님은 무조건적인 신뢰와 변호를 통해 드러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잘못이 발각될까봐 처벌당할까봐 망설이는 아이의 두려움을 잠재웠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님 사랑에 대한 보답과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용서받으리라는 신뢰로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리석을 정도로 간혹 무지몽매할 정도로 자식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어머니들이 있고, 그 어머니들의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와 그에 따른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피에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부둥켜안고 슬픔에 잠겨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조각상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힌 아들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는 성모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식의 운명이랄까, 자식의 소명을 너무나도 잘 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자식의 십자가상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저 지켜 보고 있어야만 하는 처지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힘겨웠을 수도 있으리라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의 저 수난을 멈추고 다른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으리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명대로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시험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 대신 천사를 시켜 덩불에 뿔이 걸린 숫양 한 마리를 대신 번제물로 바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창세 22,12)

아니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리라 믿고서는, 자식의 숨이 넘어가는 마

지막 순간까지도 애타게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세례자 요한이,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리자”(마태 3,14),

“예수님께서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마태 3,15)

는 성경 말씀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래야 되는 줄은 알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16-17)

그래서 그가 주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드님이며 구세주이심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아기의 할례식 봉헌 때 예언자 시메온이 말했던 바로 그대로 무너나고 쓰라렸으리라.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루카 2,34-35)

죽음을 이기는 희망

마리아는 비록 인간적인 슬픔에 잠겼었지만, 좌절이나 절망

의 늪으로 빠져들지는 않았습시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 백성들, 식민지 지배자들, 심지어는 하느님 아버지께 순간적인 원망이 들었을지는 몰라도, 마리아는 내일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다음 수순을 기다리며 지켜보았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아들의 시작이,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가 그 래왔기 때문입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 1,28.30-33.35.37)

처녀인 자신이 생명을 수태한 그 시작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일이었기에 이해할 수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실한 마리아는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이기에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면서도 그저 하느님께 의탁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

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그 응답이 오늘 이렇게까지 진행되리라고는 몰랐어도,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마르 9,31)

그 옛날 첫 시작에 천사가 했던 그 말을 되새기면서……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 1,37)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조급한 마음으로 외치셨는지 모릅니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굵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루카 24,25-26)

그 누구는 아마도 “사랑이시라는 하느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를 용서해 주려면 그냥 용서하시지, 왜 이렇게 잔인하게 비칠 정도로 아들의 죽음을 가져오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 하느님은 부활의 영광이 현실에서 인간이 노력하여 무엇을 하나 더 얻고 성취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려 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성공의 대명사인 아버지의 모습보다, 희생의 대명사인 어머니의 모습처럼, “자

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라는 말처럼,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자식의 뜻을 받아주기 위해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잡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희생해야 하는 부모님처럼, 사랑은 그렇게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주는 방정식인가 봅니다.

‘삼중기도’의 한 구절을 바쳐봅니다.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십자가의 길 기도’의 후렴을 불러봅니다.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의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기도

‘죄인인 저희를 구하시기 위해 수고수난하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죄인인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새 생명을 나눠주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십자가 아래에서 당하셨던 어머니의 고통을 기억하는 저희를 어여비 살피시는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자녀들의 좌절과 고통 앞에 함께 슬퍼하는 어머니들을 굽어보시는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또 다른 시작

주님,
주님과의 친교가 느슨해지려하면,
제겐 공허함과 무미건조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쏟아부어주시는 일상의 은총을 의식하지 않으면
일상의 단순한 반복과 고루함이
내 본욕에 부딪혀
찾아도 찾아도 결과적으로 방향이 되고
타는 목마름과
답답한 안타까움,
무료한 지루함,
명함의 연속,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으로
애타는 갈망만 더하오이다.

주님의 은총을 깊이 자각하지 않은 채 지나노라면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는 캄캄함.

한 글자도 써내려갈 수 없는 허무함이 나를 짓누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망설이며
무가치와 무의미로 뒤덮여
무기력하게 지쳐버린 나의 일상에서
복합적이고 복잡한 상념들만이 무상함의 극치를 치달나이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와 앓음으로
비로소 편안히 쉬게 되나이다.
주님 앞으로 다시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잡아주시고
저를 위로해주시고
저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에 휘감기어
다시 또 새롭게
또 다른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겠나이다.
아멘.



제4부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

14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말씀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다(요한 19,25-27)

19²⁵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²⁶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²⁷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내 어머니



어머니는 한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투병하시다가, 주님께 돌아가실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첫 휴가를 받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라도 가

야겠다고 다짐했던 제 계획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아들 신부와 딸 수녀 그리고 막내 여동생 식구들을 바라보시며 대견해 하시다가, 자식들에게서 효도다운 효도도 받지 못하시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지상에서는 당신 생애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머니의 일생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머니께서 생전에 다 이루지 못한 꿈과 선한 지향들을 헤아려주셔서, 이 땅에서 누리시지 못한 행복과 위안을 주님 품 안에서 성인들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마르 3,33)

주님께서서는 공생활 시초에 자신이 미쳤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쫓아오셨던 어머니께 불멘소리로 던진 이 말씀을 마음에 짐처럼 담고, 어머니께 송구스러움을 간직한 채 사셨나 봅니다. 지상 생애를 마치시며, 한 때 매정한 자식에게 잡시라도 섭섭해 하던 어머니께 그 동안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시고자 하셨을까? 주님께서서는 어머니를 자신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요한 19,26)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공적으로 행한 희생의 제사였지

만, 홀로 남은 어머니를 향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한 평생 자신을 길러주시고 묵묵히 자신의 뒤를 따라주셨던 어머니 마리아. 자식의 죽음을 앞두고 끝내 슬퍼하는 어머니를 못내 두고 가시기 어려우셨을까? 당신의 일생을 책임지고 돌봐주셨으며, 늘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셨던 어머니.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 교회 신자들의 어머니로 내주십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27절)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인 우리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 어머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어떤 조건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나의 공과를 불문하고 ‘나’를 ‘나’로 받아들여주실 분, 그런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는지!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 그분은 정녕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이십니다. 내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 어디서나 내가 고개를 돌리고 바라볼 때마다, 어머니 품에 다다를 때마다, 내게 어머니의 모든 것을 담뱃 안겨주실 어머니, 성모님을 주신 주 예수님께 깊은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까닭 없는 외로움과 불안함, 메마름에 갇힐 때마다 묵주기도를 바치며 어머니께 위로를 청합니다. 어떤 때는 저녁 내내 묵주기도 테이프를 틀어놓고 기도에 잠겨보기도 합

니다. 그 기도 소리로 내 주위를 가득 채운 채 잡무를 처리하면서, 어머니의 위로와 가호가 내 등을 감싸주고 계심을 느낍니다.

설사 이사야 예언자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 49,15)

라고 하신 예언처럼, 지금 내 곁에 나를 그렇게 안아주실 내 어머니가 안 계시다 하더라도, 또 현실 교회가 나를 그렇게 안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머니 마리아는 내 보루로서 내 희망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며 주 예수님에게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 안아 주시리라.

묵주기도 후에 바치는 ‘성모찬송’의 기도문이 오늘 따라 가슴속 깊이 절절이 스며듭니다.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모이신 성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거룩하신 어머니로 모시고, 성모님께 구원의 전구기도를 바쳐달라고 청합니다. 또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담기 위해 교회는 스스로를 ‘자모이신 성교회’라고 칭하며, 자비로운 어머니이신 거룩한 교회로서 살고자 노력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상에서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짓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세상을 떠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애타하며 가슴을 저미는 어머니의 마음을 간직하고자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현대 세계의 그리스도인 가정의 역할에 대한 성하의 권고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에서

“가정이 없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가정인 교회의 문이, 교구 가정과 본당 가정에서, 교회 기초 공동체와 사도직운동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가정 없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의 집이고 가정이며, 특히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의 집이고 가정입니다.”(가정 공동체 85)

라고 말하십니다.

천주교 인천교구 주보에 실린 송일순 마리줄리나 수녀님의 글을 되새겨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 보호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시기에 버려져야만 했고,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인 ‘엄마’라는 단어조차도 부르는 것이 허락하지 않은 현실을 살아야하는 아이들! 불끈, 불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의 부모를 향해 터져 나오려 하는 마음 속 원망의 함성을 잠재우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슴으로 낳기를 자청하는 양부모님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또한, 우리들의 자애로운 하늘 어머니께서 마들린과 노틀담 형제의 집 아이들과 고아들에게 친히 엄마가 되어 주셔서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청하며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함께해주는 분이심

을 믿습니다.”(제2322호, 빛과 소금, “하늘의 성모 어머니,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세요.”)

세상에서 길 잃고, 목말라하며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며 위로해주는 존재로서 살아있기를 다짐하며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 곁에 감싸 안아주고 배려해 주어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 헤아려보고, 관심과 기도와 희생과 배려로 주님 사랑을 실현하고자 성모님의 가호를 청합니다.



기도

‘부모 없이 일가친척 없이 외롭게 홀로 떨어진 이들을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길 잃고 헤매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어머니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모든 이에게 주님의 어머니를 보내주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가엾게 여기시는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세상의 비극 앞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는 교회의 힘이 되어 주시는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5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머니(루카 23,55-56; 24,1-10)

23 ⁵⁵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⁵⁶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24 ¹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²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³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⁴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⁵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⁶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⁷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⁸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

해 내었다. ⁹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¹⁰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안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내 어머니

얼마 전 본당에서 살다가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등지로 이사가신 어르신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나이 90이 넘으면 문명의 이기 등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힘으로 움직이고 살아야 해요…….”

저는 그분들의 이리저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이가 들어 사는 것 자체가 한쪽으로는 짐처럼 다가오는 생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특별히,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시점에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가셨는데, 우리에게 그 생명이 진정 신비이며 선물이고 행복일까?’

어릴 때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어 마음껏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른이 되어서 내가 어릴 때 하고 싶었던 좋은 일들을 다 하고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내 생애를 행복이며 선물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또 어떤 것도 내가 해야만 할 의무가 없을 때, 그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병들어 신음하고 있을 때, 의식조차 없이 누워서 시간만 보내며 마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을 때, 우리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애에 대해 진정 감사를 드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반드시 삶의 마지막이 아닌 일상에, 사람도 일도, 열정과 의지와 힘도 사라지고, 말 그대로 나 혼자 뿐일 그 순간이, 어쩌면 그렇게 그리워하던 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아니, 홀로 주님 앞에 마주 앉아 주님과 함께 진정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외적인 영향이나 장애 없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도 주님과 함께할 좋은 순간이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어머니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런 죄도 없이 돌아가셨기에, 아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께 생명을 되돌려 주셔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루카 24,5-7)

빈 무덤 안에 있던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에게서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얼마나 기뻐할까! 마리아와 여인들은 설레고 화급한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달려가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안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루카 24,8-10)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몇은 여인들의 말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에게서 투옥과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들

려준 소식은 제자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초래했으리라고 상상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서 되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기엔, 한 번도 인간 세계에서 경험한 적이 없어,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다른 한 쪽으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실낱같은 희망이 샘솟기라도 했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 중 모두가 토마처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마태 20,25)

탐욕과 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함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전에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서 사람들의 시기와 증오 속에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만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마태 16,21)

예수님께서서는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르 10,45)

예수님께서서는 결정적으로 성체성사를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예수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태 26,28)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모두 실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죽음의 의미와 죽음에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 있지 않았고, 그저 제자들의 마음속엔 예수님께서 영광 속에 오르실 때에 그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언제 어떻게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일념만이 새겨져 있었나 봅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사도 1,6)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 해야 할 사명은 망각한 채, 계속 예수님 부활의 확신과 부활 이후에 이어지는 영광 속에 참여할 공과논쟁과 자리다툼 그리고 이익추구에만 골몰하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소연하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7-8)

부활의 확신

어쩌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니까 믿는 것이지, 이성으로나 실제로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실제로 느껴지지도 않는데 믿는 이라고 신앙의 신비를 살려니 힘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 부활과 신앙의 신비에 대해 명쾌하게 이해는 안 가도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론상으로는 압니다. 그 이론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녹여서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나 체험에서 나오는 힘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일 확실한 깨달음이나 체험이 없다면, 기쁘고 행복해야 할 신앙의 신비는 자칫 오류나 혼돈, 부담과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오로는 로마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8-39)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목표일뿐만 아니라 신앙의 관건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

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필리 2,9-11)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부활을 향한 새로운 삶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접하도록 허락하고 맡기신 내 생애의 순간순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나간다면, 내 생애가 내겐 더 할 수 없는 선물이 될 것이며, 깊이 감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내 생애의 순간들을 거부하고 부정적이고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살아나간다면, 내 생애는 내게 커다란 짐으로 다가 온다는 것을, 지금까지 생애의 경험과 믿음 안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도 그러하리라.’고 여깁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투신하며,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에서 샘솟는 성령의 힘에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

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1요한 4,7-12)



기도

하느님께서 육신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나를 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음으로 내 짓값을 치러주기까지 하시면서,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내어주신 우리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우리 믿음 안에서 참 기쁨이며 선물이게 하소서.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며 활력있게 하소서.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저희를 새로 나게 하소서.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부활, 그 새로운 희망

주님,
늘 저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시고
샘솟는 물처럼 그 희망을 안겨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 각자가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헤아려주시고
새로운 빛으로 새 날 새 삶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부활절에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삶의 조건과 처지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시니 감읍하나이다.

주님,
주님은 진정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우리 생의 샘이오이다.

주님 비취주소서, 주님의 빛을
주님 내려주소서, 주님의 자비를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 부활의 새 빛으로 밝혀주시고 인도하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새 생명으로
기뻐 뛰놀게 하소서.
아멘.

16 기도예 전념하였다

말씀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리아

(사도 1,12-14; 2,1-4; 9,31)

1¹²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¹³성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¹⁴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예 전념하였다.

2¹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²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³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⁴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9³¹ 이제 교회예 유다와 갈릴래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내 어머니



자식들은 몸도 다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정신도 배울 만큼 다 배워 성인이 되었고, 나름대로 자격도 갖추 사회의 일원이 되었는데도, 부모님의 마음에는 자식이 늘 물가에 내어 놓은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시밭길을 힘겹게 헤쳐 나가는 것 마냥 보입니다. 혹시나 잘못 되지는 않을까? 큰 실수나 잘못이라도 저질러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거나 박해받거나 낙오되면 어떻게 될까?

언젠가 어떤 자매님이, “신부님, 딸 가진 부모가 한 시라도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아세요? 결혼해 떠났다고는 하나 시택에 가서 시집살이로 말뚫할 고생이나 하지 않을까? 맞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으로 한 시도 묵주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소연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어머니****혼란과 혼돈 속에 놓인 제자단**

사도 바오로의 증언처럼 주님께서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뒤에 다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1코린 15,4-8)

그렇게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님의 명을 따라 다락방에 모여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루카 24,46-49)

어머니 마리아는 제자들의 그런 혼란을 이미 겪어 보셨기에,

잘 이해하셨고 함께해주시며 격려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자라면서 우리의 서당과 같은 당시 사회의 교육기관에 보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예수가 학교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친구들과 같이 나가 노느라 미처 집에서 부모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때마다 마리아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자식을 기다리며, 예수의 부재로 인하여 허전하고 우려되고 안타까운 순간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예수를 잊어버린 채 하루 길을 더 걸어 집으로 돌아오며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루카 2,43-51), 예수를 떠나보내고 홀로 집안을 일궈나가야만 하는, 어쩌면 집안에서 예수가 그렇게도 필요한 시기에 정작 예수는 공생활을 시작한다고 집을 나섰을 때,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찾아 나섰을 때(마르 3,32-33),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없는 그 순간의 혼돈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마리아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명을 따라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분, 곧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제자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사도 1,12-14)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교회를 배반하고 떠났던 유다의 빈자리에 마티아를 선별하여 열두 사도단을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빠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사도 1,21-26)

늘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성모 마리아는 새 사도 마티아가 뽑힐 때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갈구했습니다.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

마침내 성령강림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사도 2,1-4)

마리아는 그 때,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사도들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그 날 이후 사도들의 모후로서 사도들이 주님의 명대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는 축복과 영광의 매 순간에 함께 하시며, 뒤에 남아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후원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어린 예수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과 성인이 된 예수가 세례를 받고 아버지 하느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과 마침내 사명을 다 이루는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에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후에도 초기 교회 공동체의 변모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보고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주님의 뒤를 이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의 후원자로서, 어머니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기도

‘우리 교회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 주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갈구하도록 어머니를 보내주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교회의 매 순간에 함께하시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도록 교회에 어머니를 허락해주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사도들의 어머니시며 후원자로 마리아를 정해주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교회 공동체의 매 순간에 주님 곁에 서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모 호칭 기도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 자비를 베푸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천주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 천주의 성모님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그리스도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천상 은총의 어머니
티없으신 어머니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
순결하신 어머니
흠없으신 어머니
사랑하올 어머니
탄복하올 어머니
슬기로우신 어머니
창조주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공경하올 동정녀
찬송하올 동정녀
튼튼한 힘이신 동정녀
인자하신 동정녀
성실하신 동정녀
정의의 거울
상지의 옥좌
즐거움의 샘
신비로운 그릇
존경하올 그릇

지극한 사랑의 그릇
신비로운 장미
다윗의 망대
상아 탑
황금 궁전
계약의 궤
하늘의 문
셋별
병자의 나움
죄인의 피신처
근심하는 이의 위안
신자들의 도움
천사의 모후
성조의 모후
예언자의 모후
사도의 모후
순교자의 모후
증거자의 모후
동정녀의 모후
모든 성인의 모후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모후

묵주기도의 모후

가정의 모후

평화의 모후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를 용서하소서.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자비를 베푸소서.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이 세상의 슬픔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